

# PUBLIC ART

THE MONTHLY PUBLIC ART MAGAZINE  
WWW.ARTINPOST.CO.KR MAY 2015



세계비엔날레 속 한국작가 60

## 60 korean artists in the biennales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잡지 2015

9 771975 643707  
ISSN 1975-6437  
05

104  
201505

## Kim Sooja 김수자

클라인플라스틱트리엔날레(1995)



〈To Breathe: Bottari〉 2013 Mixed media installation, partial installation view of the Korean Pavilion, The 55th Biennale di Venezia 2013, Photo: Jaeho Chong, courtesy of Arts Council Korea, Kukje Gallery, Seoul, and Kimssooja Studio

1957년 대구에서 태어난 김수자는 한국미술을 넘어 국제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수많은 인파 속, 화면을 등진 채 꼼짝없이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영상작업 '바늘 여인' 시리즈가 유명한데, 여기서 작가 자신은 인파를 꿰뚫는 바늘로서 역할 한다. 1999년 일본 도쿄에서 시작해 여러 도시에서 이어간 이 시리즈 외에도 작가는 사회 속 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과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다. 김수자는 1980년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1984년에 동대학원 미술 석사학위를 받은 뒤 프랑스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에서 석판화를 전공(1984-1985)했다. 이스탄불비엔날레(1997), 상파울로비엔날레(1998) 등 다양한 국제 비엔날레를 거친 작가는 1999년 베니스비엔날레에 처음 참가한 이후로 2001년, 2005년, 2007년에도 작품을 선보이며 명실공히 한국대표작가로 자리 잡았다. 특히 2013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작가로 참여해 삶과 존재의 문제에 대한 사유를 선보이며, 해외 미술계에서 큰 호평을 자아냈다.

Kim Sooja is one of Korean artists who actively works in global art scene as a conceptual and performance artist. Born in Daegu, in 1957, she is famous for her video series entitled 'Needle Woman.' In this video, she stands in the middle of the screen, and back to the camera. She is only person who does not move in the crowd. Through the works, she raises the question about the relation between individual and society. Currently she lives and works in New York, Paris and Seoul, she earned B.F.A. and M.F.A. at Hongik University, attended Lithography studio at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Paris, France. Participating in over thirty Biennales and Triennales, she represented Korea for the 24th Sao Paulo Biennale in 1998 and the 55th Venice Biennale Korean Pavilion in 2013.

